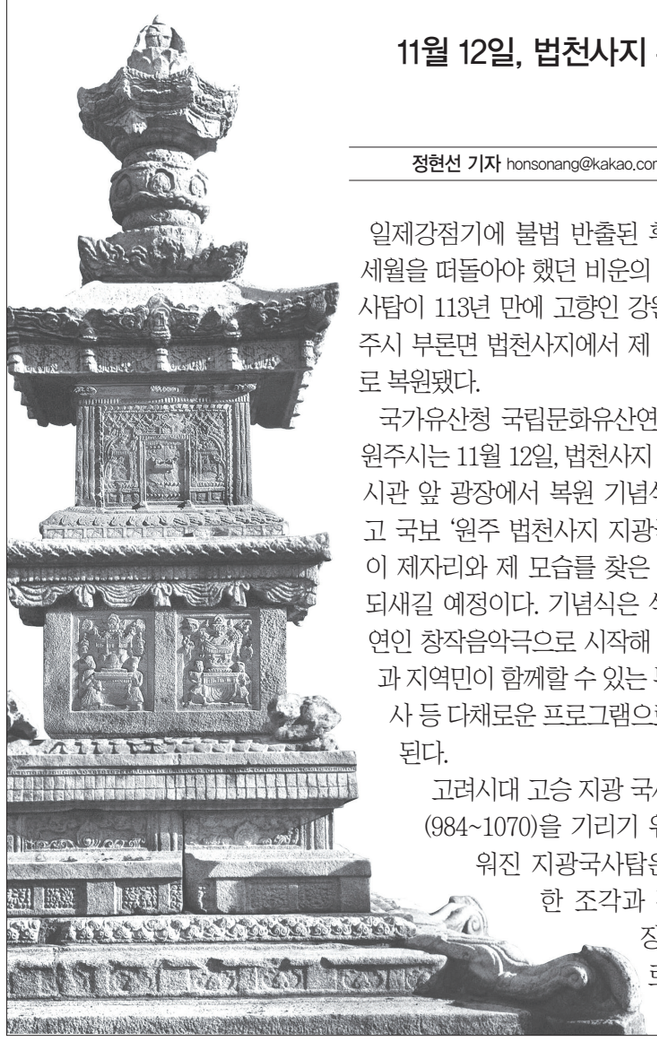
지광국사탑, 113년 만에 제 모습을 찾다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 광장서 복원 기념식

국보 '지광국사탑' 복원 완료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돼 유랑
국립문화유산硏 5년 보존처리
지진 대비 안정성 확보 완료
내년 최종 복원 보고서 발간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후 오랜 세월을 떠돌아야 했던 비운의 지광국사탑이 113년 만에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서 제 모습으로 복원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 광장에서 복원 기념식을 열고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제자리와 제 모습를 찾은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인 창작음악극으로 시작해 제막식과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부대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고려시대 고승 지광 국사 해린(984~1070)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지광국사탑은 화려한 조각과 장엄한 장식으로 고려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법천사지에 있던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처음 반출된 뒤 1975㎞에 달하는 길고 긴 유랑생활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가 탑을 매입했고 서울 명동에 위치한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했다. 이후 오사카의 한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고 탑은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이를 안 조선총독부의 반환 명령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1915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조선물산공진회 장식재로 쓰이며 원래의 위치와 의미에서 멀어지게 됐다.

지광국사탑은 1951년 한국전쟁 중 포탄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상륜부와 옥개석이 1만2000여 조각으로 부서진 것이다.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故 임천 선생에 의해 복원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가 국립고궁박물관 뒤뜰에 자리하게 됐다.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탑의 균열과 풍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문화재청은 결국 2015년 해체와 보존처리를 결정했고, 2016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로 탑을 이송해 5년간의 정밀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은 지광국사탑을 전면 해체하고 보존처리에 착수했다. 복원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1957년 사용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원래의 석재로 복원하는 일이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흑화와 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세척 기술과 전통 접합 방식을 적용하고, 결실된 부재는 산지를 분석해 당시 재질과 최대한 유사한 돌로 대체했다. 1957년 복원 당시 잘못 맞춘 옥개석과 추녀 위치도 바로잡았다. 지진 진도7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면진대를 설치해 탑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중과 진동을 분산시키는 구조도 마련했다.

복원 과정은 과학적 보존과 전통 기술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러 전문가의 공동연구로 탑의 도상과 문양을 복원하고 석재의 산지를 추정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현재까지 복원 관련 보고서 4권을 발간하고 내년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광국사탑의 귀환은 해외로 반출된 석조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온 모범 사례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사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며 "지광국사탑 복원을 계기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0돌 한국불교연구원 기념 심포지엄 개최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 주제로 한국불교 미래 방향 제시해

한국불교연구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불교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용 전 원장은 불교가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발전해온 점을 강조했다.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불교와 과학이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불교의 연기론과 공사상에서 찾았다.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사성제를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성태용 전 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가 공동체적 기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비와 공존을 역설했다.

정현선 기자

기무라 기요타카 교수, 12회 청송학술상 수상

11월 1일, 시상식 개최 화엄사상 연구로 주목

재단법인 청송장학회(회장 김종욱)가 주최하는 제12회 청송학술상의 수상자로 기무라 기요타카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과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기무라 기요타카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연구, 특히 화엄사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로 화엄사상과 불교사상의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탐구해온 공로로 주목받았다.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무라 교수는 "불교 연구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선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석궤론과 수심요론' 탐구

11월 15일, 법련사 대웅보전서 제153차 정기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은 11월 15일 2시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제153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세친의 석궤론과 홍인의 수심요론'를 주제로 불교 사상과 수행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길산 경남대 교수가 '세존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유식이십론과 석궤론에 나타난 '인무아'의 개념을 고찰한다.

두 번째 발표는 강지언 서울대 교수가 진행한다. 강 교수는 '수심요론'에 나타난 홍인의 사상과 신심을 중심으로 한 수행 방식이 초기 중국 선종 사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명한다. 정현선 기자

고려시대 불교예술 정수 '금니사경과 나전경함'

9월 5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리움미술관서 만나는 고려 걸작
7권 전체 절첩본 '금니 묘법연화경'
정교의 극치 '나전국당초문 경함'



예술적 걸작으로 평가받는 두 유물이 리움미술관 '전 · 함: 깨달음을 담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고려 시대 왕실의 신앙과 예술을 대표하는 두 걸작, '감지금니 묘법연화경'과 '나전국당초문 경함'이 리움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은 내년 2월 23일까지 5개월여 동안 M1관 2층에서 상설기획전 '전·함: 깨달음을 담다'을 열고 고려 불교 예술의 가치를 조명한다.

예로부터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발원자의 염원을 담아 가장 공덕 높은 예술로 여겼다. 이번 전시는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듯 글과 그림 모두를 순도 높은 금으로 이룬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7권 전체와 고려 시대 나전 공예의 정수인 '나전국당초문 경함' 만으로 전시를 꾸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금빛으로 빛나는 '감지금니 묘법연화경'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려 충목왕 시절인 1345년, 진한국대부인 김 씨가 왕실의 안녕과 영혼의 구원을 기원하며 조성한 법화경 사경은 절첩본 형식으로 제작되어 접어서 보관하고 펼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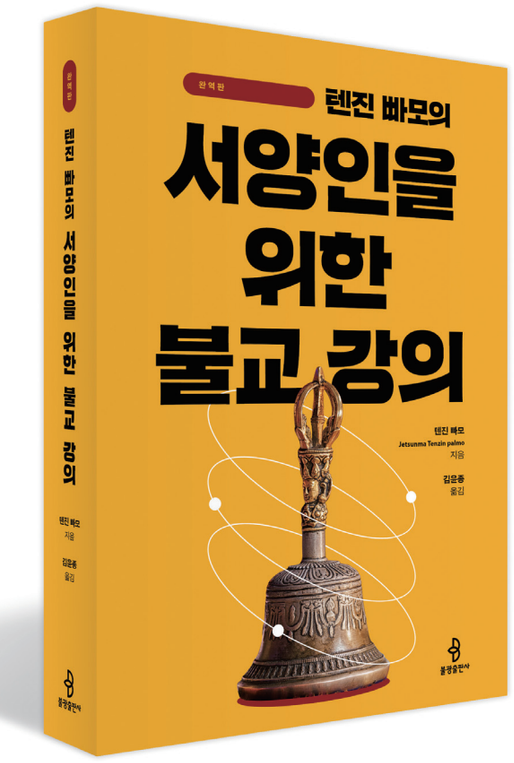
모든 글과 그림이 금으로 쓰여 있어 화려함이 압도적이며, 전체 7권이 모두 남아 있어 예술적 완성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각 권의 앞부분에는 경전 내용을 요약한 변상도가 그려져 있고 제7권의 말미에는 발원문이 있어 역사적 맥락을 더해준다. 고려 후기 최고위층 여성 재가 신도가 발원한 사경이란 점에서 당시 권력층의 깊은 신앙심과 그들이 쏟아부은 정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함께 전시된 '나전국당초문 경함'은 압도적인 정교함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수만 개의 나전 조각이 얇은 철선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꽃문양을 이루고 있다. 표면은 반복된 옻칠 작업을 통해 요철 없이 매끄럽게 유지되고 있다. 당시 고려 시대 장인들이 나무라는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경함을 완성한 것은 고려 공예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20여 점만 남아 있는 나전 경함은 보관함을 넘어 예술품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한다.

이광배 소장품연구실 수석큐레이터는 "전시회는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고려인들이 품었던 신앙심과 예술적 열망을 직접 느껴볼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선 기자

2023년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여성 100인' 중 유일한 종교인,
티베트불교의 '역사'가 된 영국 출신 비구니 텐진 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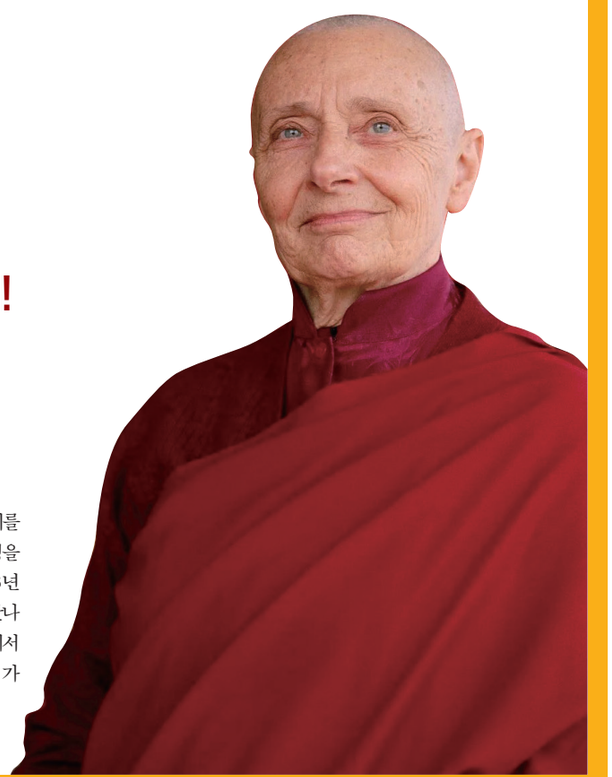
"난 합리적이야!" "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나야!"라고 말하는 서양인들에게
…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에게

삶과 불교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가장 친절하고 감명 깊은 불교 입문서!

텐진 빠모의 서양인을 위한 불교 강의

텐진 빠모 지음 · 김윤종 옮김
472쪽 | 값 25,000원

텐진 빠모(Jetsunma Tenzin Palmo)
1943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열여덟 되던 해 처음 불교를 만났다. 2년 후 인도로 건너가서 스승 캄뚤 린뽀체를 만나 1964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1973년 비구니계를 받으며 '서양인 여성 최초 티베트불교 비구니'라는 호칭을 얻었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 동안 히말라야의 외떨어진 동굴에서 집중 수행에 들어갔다. 마지막 3년은 아예 외출조차 삼가고 폐문 수행을 했다. 1988년부터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을 순회하며 서양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이 순회 법회는 2022년 마무리했다. 지금은 히말라야의 동규가찰링(Dongyu Gatsal Ling) 사원에서 120여 명의 비구니와 함께 수행하며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여성 100인'에 종교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텐진 빠모를 선정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